

이철수는 화가인가? -15년 우정의 짧은 회상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예배당 처마 아래에 두 청년이 비를 피하여 서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초면에 유난스럽다 느껴질 만큼 밝게 웃었다. 멀리 서울에서 일부러 나를 만나서 왔다고 했다. 아니, 사실은 두 친구가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지나는 길에 찾아왔다가 주인 없는 빈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꽤 오래 기다린 모양이었다. 우선 방으로 안내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한 청년은 대학생이었는데 가까운 꽃거리에서 전도사로 일하는 후배의 아우였고 그와 동행한 친구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아직은 무명입니다만 대단한 화가가 될 겁니다. 머잖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질 거예요.” 후배의 아우가 여전히 싱글거리면서 웃으며 제 동무를 두고 말했다. 화가라는 친구가 제 이름을 댔다.

“이철습니다.”

철수라는 이름은 교과서에서 많이 익혔던 이름이다.

“이름이 철수라면 이미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초면에 남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그의 밝고 소박한 웃음이 나로 하여금 험사리 인사치레 격식 따위를 벗어 던지게 했던 것 같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이숙하도록 술잔을 가운데 두고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 입에도 대지 말라 그 술!” 하며 금주가禁酒歌를 불러야 하는 목사, 그것도 햇병아리 목사이기도 했지만 그때나 이제나 알코올하고는 도무지 사귀지를 못하는 몸이라 두 젊은 친구가 주로 마셨는데 해당화로 빚어 만든 꽃술 한 병을 다 마시고 다른 무슨 술을 더 마신 기억이 난다. 장차 대단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이철수가 셋 중에서 가장 많이 마셨고 당연히 말도 가장 많이 했다. 화제話題는 그림 그리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무슨 ‘혁명’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고 당시의 독재자인 박정희 장군에 대한 저주에다가 나약한 지식인에 대한 성토까지 그야말로 종횡무진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림은 이제 액자에 담겨 걸려 있는 거실의 벽으로부터 해방되어 거리 장터로 진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안개 걷히듯 사라지곤 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른바 운동권의 물을 좀 마신 사람들, 나이 지긋한 현장 출신 말고, 그러니까 주로 사회과학서적을 통해서 그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 따라서 젊은 이론가들이 되겠는데, 그들의 말이나 글은 대체로 어렵다. 얼핏 들으면 매우 이론이 정연한 것 같지만 그 말이나 글에 담겨 있는 의미(뜻)가 선명하게 전달되지를 않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화가 이철수는 나에게 열 마디 말로 한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고작이었다. 첫날 밤의 대화는 따라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말 잔치 속에서 야릇한 허기를 느끼게 했다. 하룻밤을 자고 두 친구는 떠나갔다. 한 친구는 역사인지 뭔지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인지 독일인지로 간다고 했고 이철수는 자기집 주소를 일러줬다. 우리는 모두 아직 젊으니 열심히 공부하자고, 서울 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연락하겠다고, 판에 박힌 인사를 나눈 다음 헤어졌다.

며칠 뒤 두터운 편지봉투가 배달되었다. 이철수가 느닷없이 ‘형님’이라는 호칭을 들이대며 여전히 길고도 난해한 횡설수설을 띄운 것이다. 긴 편지를 단숨에 읽고 나서 나는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이 친구 천재군!”

물론 그가 과연 자기 동무의 말대로 ‘대단한 화가’로 될 것인지, ‘이현주보다 더 유명한 인물’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염두에도 없었다.

수유리에 있는 그의 집은 작은 한옥이었는데 고등학생인 아우와 함께 양친슬하에 살고 있었다. 처음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겨우 사람 앉을 만큼만 남겨두고 사방이 책과 먼지로 쌓여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출입문에는 수건이 걸려있었는데 그 수건에 베토벤의 데드마스크 비슷한 사람의 얼굴이 굳어진 채 박혀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몇 차례 서신이 오갔고 마침 같은 수유리 동네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상경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만났다. 이야기 솜씨로 말하면 아들보다 화가의 부친이신 운남 雲南 선생께서 훨씬 더 탁월하셨고 나는 그분의 재미있고도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워서 더욱 자주 갔다.

12.6. 사태가 터지고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서 김대중 김영삼 씨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국립묘지를 드나들 무렵, 나는 중음신 中陰神처럼 허공을 헤매고 다니는 ‘노래’들 가운데 몇 개를 붙잡아 종이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옮겨 놓고 보니 그것들을 이른바 詩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될 것 같아서 난생 처음으로 시집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시집이름은 <마른뺨의 기도>라고 붙이고 표지를 화가 이철수에게 맡기기로 했다. 표지가 다 만들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해 보니 새빨간 종이에 관화를 찍어왔는데 몽크의 ‘절규’를 연상케 하는 상당히 선동적인 그림이었다. 시집의 내용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이철수는 관화 2백장을 정성스레 찍어서 광산 슈퍼 맞은 편 어느 책가게 앞 양지바른 길가에 펼쳐 놓았다. 붉은색과 검은 색이 강하게 대조를 이루며 내 가슴을 흥분시키던 일이 기억난다. 내용은 활자를 쓰는 액자 대신 비틀거리는 나의 펜 글씨로 써서 마스터 인쇄를 했고 을지로인지 어딘지 허름한 제본소에 맡겨 책을 만들었다. 나로서는 처음 펴낸 시집이었고 이철수 또한 처음 만들어 본 책 표지였다. 한정판 2백 권을 찍어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눠 줄 생각이었는데, ‘서울의 봄’이 5.17로 죽어버리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반공법인지 뭔지 어겼다

는 죄목으로 ‘검거’되자 <마른 뼈의 기도>는 고스란히 압수되어 강릉경찰서 창고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다. 책 표지를 하필이면 새빨간 종지로 만든 저의가 뭐냐고 다그치던 대공분실 아무개 씨에게 사실 나는 아무 대꾸할 말도 없었지만 그림 그린 자가 누구냐고 캐묻지 않은 것만도 당시로서는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화가는 당돌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주로 그린 게 일컬어 장관지 그림이라는 것이었는데, 장관에 진흙을 개어 그림의 여백을 메꾸고 그 위에 검은 콜탈인지 뭔지를 부어 마르게 한 다음 다시 물로 흙을 씻어내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완성된 그림은 세상에 한 장밖에 없는 관화 아닌 관화였다. 대체로 대작이었고 장관지를 대여섯 장 붙여서 풀쑏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양을 그린 것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 그림은 잠시 내가 시무하던 시골 교회 뒷벽에 걸려 있다가 서 남동 목사에게 넘어가서 그분이 원장으로 있던 선교교육원의 벽을 한동안 장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사동에 관훈미술관이라는 전시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철수 덕분이다. 그곳에서 열렸던 첫 번째 전시회는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버렸다. 과연 친구의 말대로 ‘대단한 화가’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 무렵 이철수는 오윤이라는 관화가에게 빠져있었던 것 같다. 가끔 만나면 ‘오윤 선배님’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에게서 귀기 서린 ‘칼’을 물려 받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첫 전시회를 마치고 화가 이철수는 본격적으로 칼을 움켜잡았다. 칼이 그의 혼을 타고(乘) 고무 판 또는 나무 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으면서 어느새 법法을 떠난 춤이었다.

허병섭 기독교에 관계되는 동월교회 벽화를 그릴 무렵, 난곡동에서 탁아소 운영으로 당시 운동권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를 모으고 있던 이 여경 씨를 만났고 얼마 동안 연애를 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고 장환이.가현 이를 연이어 낳고 그러는 동안 이미 ‘유명 화가’가 되어 시위현장이나 집회현장에서 제 몸보다 더 큰 복을 당당하게 울리는 그의 모습이 펠릭이면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동안 기독교에 관계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내 눈에는 별로 신통치 못했다. 어딘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보였다. 그러다가 의성군 효선에서의 시골생활, 부천에서의 아파트 생활, 다시 백운면 박달재 아래의 시골생활로 자리를 옮기면서 불교 쪽 인사들을 만나더니 신통하게 그의 칼끝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양 냄새 나는 종교하고는 좀처럼 재미를 못 보다가 불교를 접하면서 신명이 나기 시작한 것은, 내 생각에 그의 칼이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가끔 박달재 아래 그의 화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번은 문득, ‘이철수는 과연 화가인가?’ 하는 물음이 떠올랐다. 그가 자신의 그림보다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것에 아슬아슬 올라타고 건너가려는 그곳은 과연 어디인가?

속으로 궁금하지만 나는 그걸 입밖에 내어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가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장환이 엄마’의 살림살이도 조금 함께 걱정해 보고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씩 나누며 그렇게 좋은 이웃으로 착한 ‘형’으로 곁에 머물고 싶을 뿐이다.

그의 화실 한쪽 벽에는 원주의 무위당 無爲堂 장 일순 선생께서 예서로 써 주신 한 폭의 액자가 걸려있다.

“불취어상 不取於相“, <금강경 金剛經>의 한 구절이다. 화가는 어차피 상相을 화폭에 담기 마련이다. 이철수는 나무에 칼로 그 많은 相을 새기면서 도대체 어떤 相 아닌 相을 노려보고 있는 것일까? 여여부동!(如如不動) 출렁거리는 물결 위에 천 개 만 개 도장 찍힌 달처럼, 민중의 바다 물결을 타고 천변만화로 흐르면서 바뀌면서 오히려 미동도 않는 칼잡이 이철수를 보고 싶다.

글 / 이현주